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되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라

☞ 21면에서 계속

답변 한계가 없는 걸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너 나가 둘이 아니고 산천초목,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자기 영역에서는 높다는 거를 상징한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든지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높다는 겁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렁이는 지렁이 소굴에서 높고, 거북이는 거북이 소굴에서 높은데 단,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높은 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것저것 탓할 게 없이 여여하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여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내놓은 것에 끄달린다면 한 걸음도 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다고 봅니다. 어느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왕위에 올라서서 일을 하다가 큰 종기가 났는데 앓다 보니까 몸뚱이가 아주 마르고 이제는 다 죽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병문안을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업보가 될 것을 모르고, 죄업이 될 것을 모르고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선 것을 참 한탄한다고, 앓아 드러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승에서는", 즉 얼른 쉽게 말해서 얕은 지위의 중생들은, "업보가 있겠지마는 당신은 업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업보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 "톱이나 도끼로 나무를 잘라 내고 그래 봤던들, 그 톱이나 도끼에 업보가 붙는 것 보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지금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얘기하신 건데, 문안을 드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굼벵이가 자기가 나올 때는 자기 어미를 탁 찢어 버리고 나옵니다. 독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랄 때는 자기 어머니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도 죄가 붙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 말끝에 홀연히 깨달아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 모두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에 그냥 먹었을 뿐이지, 그거를 먹었다고 해서 죄가 붙을 자리가 없구나.' 이거는 대승의 도리입니다. 대승이라는 도리도 없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붙을 자리가 없구나. 모두가, 너 나가 다 둘이 아니거늘 붙을 데가 어딨는가.'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왕위에 올라섰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물 한 방울에 다른 물 한 방울이 들어간다면 한 방울의 물이지 거기에는 두 방울의 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냥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그건 마음의 도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지, 부처님이 삼라만상 다 둘이 아니게 한자리를 하고 계시고 모두 평등하게 집어 잡숴다면, 그 부처님의 골수를 집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어 먹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이 수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형제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질문 저희는 삼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나면 서로 다투기만 하니 제가 맏형으로서 좀 무마시켜 보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화목한 집안을 보면 너무 부러운데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어떠한 살림을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상대도 있고, 집안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첫째도 마음이요, 둘째도 마음이요, 셋째도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이 처음에 왈딱 일어날 때에 탁 놔야지 그게 벌어져 가지고 얽히고설킨 이후에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남이 언짢아할지 좋아할지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싸움을 붙이지도 않고 가정도 화목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크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닥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애들하고나 가지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찰나찰나 닥쳐오는지…. 또 어떤 때는 즐거움도 닥쳐와요. 뭐, 어려움만 닥쳐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어려운 일만 많이 닥치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놓으라고 했죠.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니까 어렵지 않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되돌려서 맑은 물로 대치해서 쓰라고 하는 말을 수차에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생활하는 물질세계가 50%라고 한다면 정신세계가 또 50%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정맥 동맥이 같이 둘 아니게 돌아가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같이 돌아가느니만큼 정신계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정신계로 돌아서 현실계로 나오는 거니깐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 나올 거라면 먼저 거기다 넣어서 돌아 나오게 만들어야죠. 용광로에다 헌쇠를 넣으니까 재생돼서 새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탄도 부서진 거 갖다 넣으면 재생돼서 새로이 나옵니다. 방편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 안됐지만요, 하치 못한 방편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나 작으나 방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을 숭배만 할 줄 알았지, 그리고 숭배를 합네 하면서 이만큼 고덩어리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고는 그거를 감해 달라고, 우리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고, 뭐, 일가친척까지도 모두 잘되게 해 달라고 그냥 잡다하게 빌 뿐인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모든 에너지가 흡수돼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무는 태양열과 공기, 그 어떠한 에너지도 다 아래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야 물바퀴가 저절로 돌아가듯 샘물이 저절로 돌아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 푸르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만약에 딴 나무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도와줄 줄 알고 딴 형상한테 빌고 딴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빈다면 거기서 에너지를 그리로 보내 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나무의 자기 뿌리만이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 공덕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들어 있고,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요 향나무 이파리 같은 거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네 내면, 그 육체 안에 생명들이 각계각층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수억 광년 전부터 진화돼서 바뀌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왔다는 증명서예요, 증명서. 내 몸뚱이가 증명서라고요. 그러니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닙니다.
> 조그마한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 내가 체험을 해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그것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배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커서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의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세계예요. 중간에 서서 배를 타고 가는 셈이란 얘깁니다. 이 몸뚱이를 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생들이 그 속에 잔뜩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노를 젓고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울근불근해서 배가 뒤집히면 너와 내가 다 죽어요, 선장이고 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하고 선장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다스리면서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니 한 구멍에서만이 대치할 수 있다. 한 구멍에서 병을 내보냈으니까 한 구멍에서만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의 악업 선업이 영혼과 부착이 돼 가지고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딴 데서 오는 거라곤 없어요. 안의 악업 선업에서 좋고 기쁘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다른 데선 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일을 할래도 수없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잘되는 수도 있고, 해 보려고 하면 망하고, 허허허, 좀 살 만하고 조금 모였다 하면 다 나가고 하는 문제들이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건건이 생기곤 하죠. 그것이 바로 선악업에서 나오는 까닭이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는 것마다 불바퀴에다 놓으라고 하죠. 오는 대로 그냥 거기 집어넣어라. 그러면 타 버린다.

닥치는 대로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이지, 그냥 '아이그, 버리자.' 그러고 놓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게 했으니까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고, 상황에 따라서 또 '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네가 모든 걸 막아야 하지 않아?' 하고 또 놓고 '이것은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놓고, '너만이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그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잘못됐다거나 잡혀갔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논다거나 건건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돼서 애로가 많은 집들도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식구들이 전부 애를 쓰는 집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대치를 해야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가 시급한 게 지금 그거지 딴 게 있습니까? 내 몸과 가족들과,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 바로 내 성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돼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 이 세상 물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다 탁 트인단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그러니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내 탓이라고 돌리기엔 억울한데

질문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닥치면 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확실히 뿌리박히게 다시 한번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을 내고 막 악을 쓰고 그러다가도, 자기가 악쓰고 그런 새가 없는데 악쓰고 그랬다는 자체가 바로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게 남으면 그게, 즉 말하자면 악이 되고 업이 되고 그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깐 그 업이나 악이나 그런 거를 풍기지 마시고 이게 어떠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 탓이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탓이 아니지만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라 이거죠. 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식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그러죠. 자식이 막 나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집의 문을 깨뜨렸거나 이래도 그건 부모가 물어 줘야 하는 거죠. 그건 자식이 깨뜨렸다고 자식이 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물어야죠. 그리고 부모가 책임이고요.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모두가 자기, 제각기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싸울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멋지게 싸울 필요는 있겠지만 멋지지 않게 싸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싸우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런 소리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돈도요, 돈이 될 거라면 요렇게 그 집을 좀 들여다보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게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러면 돈이 엄청 엉뚱나가게 생기는 수도 있죠. 그러니깐 이 물질도 다 말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안다는 얘깁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어싱슈즈 블랙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